

2009년 IT수출 1,210억불, IT수지 590억 달러 흑자

2009년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최고치인 410억불을 달성했으며, 세계 수출 순위는 9위권으로 도약하였고, 세계시장점유율 3%을 이룬 것으로 지식경제부가 추정하였다.

무역수지흑자 사상최고치

2009년 수출은 전년대비 △13.8% 감소한 3,637.7억 달러, 수입은 △25.8% 감소한 3,227.9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09.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무역수지 흑자의 이전 최고치는 '98년 390.3억불이다. 특히, 12월 수출은 전월(18.1%)보다 크게 증가(33.7%)하고 수입도 큰 폭의 증가세(24.0%)를 기록하여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하였다.

【 2009년도 수출입실적 】

(단위: 백만달러, % 잠정, 통관기준)

구 분	2009년			2008년		
	1~11월	12월	1~12월	12월	1~12월	
수출	실적증가율	327,526(△17.1)	36,244(33.7)	363,770(△13.8)	27,118(17.9)	422,007(13.6)
수입	실적증가율	289,845(△29.1)	32,942(24.0)	322,787(△25.8)	26,576(21.6)	435,275(22.0)
무역수지	실적	37,681	3,303	40,983	542	△13,267

수출은 세계교역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전하여 사상처음 세계 9위권 도약 및 시장점유율 3.0%를 이루었다. 수출증감율('09.1~10월, %)은 (상위 15개국, '08년 비중 61.6%) △26.8, (한국) △19.7이다. 세계 수출순위 ('08 → '09.1~10월)는 (한국) 12위 → 9위, (러시아) 9위 → 13위이고, '89년 세계시장점유율 2.0% 진입 이후, 20년만에 3.0%대(Global Insight)인 것이다.

세계 9위권 도약

품목별로는 선박과 액정디바이스 등 IT품목이 호조

세를 견인했다. 수출증가율(%)은 (액정디바이스)28.5 (선박)4.4 (반도체)△5.3 (섬유)△12.6 (무선통신기기) △13.5 (석유화학)△14.9 (철강)△22.9 (자동차)△27.4 (일반기계)△28.3 (석유제품)△39.2이다.

선박(4.4%↑)은 금년 수주급감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주 효과로 인해 사상최대의 수출실적(450억달러) 및 수출 1위 유지하고, 액정디바이스(28.5%↑)는 가전하향 등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수출증대 및 사상최대 수출실적을 시현한 것이다.

반도체(5.3%↓), 석유화학(14.9%↓), 자동차부품(16.0%↓) 등은 중국의 내수부양책 등을 활용해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다. 중국정부는 家電下鄉, 자동차下鄉, 以舊換新 등 내수촉진을 추진 중('09~'10년)이다.

철강(22.9%↓), 기계(28.3%↓), 자동차(27.4%↓), 석유제품(39.2%↓) 등은 수요부진,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수출회복이 지연되었다.

개도국 수출 선전

지역별로는(1.1~12.20) 금융위기 영향이 컸던 對선진국 수출이 급감(21.2%↓)한 반면, 對개도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12.5%↓)하였다. 지역별 수출증가율(%)은 (대양주)47.3 (중국)△7.5 (인도)△13.2 (중동)△11.7 (ASEAN)△17.5 (미국)△18.9 (중남미)△19.8 (EU)△21.6 (일본)△23.7 (동유럽)△36.3이고, 對개도국 수출비중(%)은 ('07)65.9 → ('08)68.9 → ('09)71.2이다.

특히, 對中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비중도 지속 증가하였다. 對中 수출증가율(%)은 (자동차부품)33.0 (반도체)1.2 (액정디바이스)81.5 (납사)42.7 (합성수지)4.6 이다. 수출비중 변화('08 → '09.1.1~12.20, %)는 (1위, 중국)21.7 → 23.9 (2위, 미국)11.0 → 10.4 (3

위, 일본)6.7 → 6.1 (4위, 홍콩)4.7 → 5.4 (5위, 싱가포르)3.9 → 3.8이다.

수입은 대폭 감소

수입은 유가하락, 내수부진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원자재(△32.9%)는 유가 등 원자재가의 하향안정으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비중도 축소되었다.

원유도입단가(\$/B)는 ('08)99.3 → ('09)60.7이고, 수입액(억불)은 ('08)858.6 → ('09)506.3이다. 수입비중(08 → 09.1.1~12.20, %)은 (원자재)62.4 → 57.4, (자본재) 28.3 → 32.1, (소비재)9.2 → 10.4 이다. 수입증가율(%)은 (원유)△41.0 (석유제품)△27.2 (가스)△30.9 (석탄)△20.0 (철강)△42.0이다.

자본재(△16.7%)는 경제침체·수출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로, 소비재(△16.4%)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자본재 수입증가율(1.1~12.20, %)은 (반도체제조장비)△41.7, (디스플레이제조장비) △62.0이고, 소비재 수입증가율(1.1~12.20, %)은 (승용차)△26.8, (가구) △26.4, (골프채) △17.3, (신발)△11.2이다.

일평균수출입액은 1/4분기를 저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수출입증감율도 1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對中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對중동, 對日 무역역조는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무역수지(08 → 09.1.1~12.20, 억불)는 (중국) 144.6 → 308.2(163.6 ↑), (중동) △750.0 → △371.0(379.0 ↑), (일본)△327.0 → △264.5(62.5 ↑), (미국) 80.1 → 71.8(8.3 ↓)이다.

2010년 수출 13% 증가

금년도 대내외 경제변수의 변화를 감안한 모델 분석과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10년 수출은 '09년 대비 13% 내외 증가한 4,100억달

러 내외, 수입은 21% 내외 증가한 3,900억달러 내외로 예상되며, 무역수지는 200억달러 내외 흑자 전망이다.

무역규모가 8천억달러로 회복하고 수출입이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규모(억달러)는 ('00)2,915 → ('05)5,457 → ('07)7,283 → ('08)8,573이다.

【 2010년도 수출입 전망 】

(단위: 억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09년(잠정)	2010년(전망)	※ '10년 전망의 전제조건 : 세계경제성장률 3.1%(IMF) : 국내경제성장률 5.0~5.5% : 국제유가(Dubai) \$80/B 내외 : 환율 1,100~1,150 ₩/\$
수출(증가율)	3,638 (△13.8)	4,100 (12.7)	
수입(증가율)	3,228 (△25.8)	3,900 (20.8)	
무역수지	410	200	

금년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여건은 다소 개선되나, 유가상승, 환율하락,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

신흥국 소비확대가 기여

미국·EU 등 선진시장의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소비확대가 세계경제를 견인할 전망이다. '10년 경제성장률 전망(IMF, '09.10, %)은 (세계) 3.1, (선진국) 1.3, (개도국) 5.1, (미국) 1.5, (일본) 1.7, (유로) 0.3, (중국) 9.0, (인도) 6.4, (브라질) 3.5, (러시아) 1.5이다.

유가는 경기회복, 달러약세, 투기수요 등으로 다소 상승해 연평균 80 \$/B(Dubai) 내외로 전망('09년 61.9 \$/B 추정)된다. (에경연) 74.4, (CERA) 65.1, (삼성研) 83.9, (LG研) 80.0, (현대研) 85.0, (한경研) 75.0 이다. 환율은 국내 달러화 공급우위 기조,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으로 전반적인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년도 수출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업종별 협회 및 수출기업들도 우호적으로 예상한다.

'10년 업종별 전망(%)은 (반도체)24.2 (가전)20.1 (섬유)12.7 (컴퓨터)12.2 (일반기계)12.2 (석유제품)11.3 (액정디바이스)10.1 (무선통신기기)8.7 (철강)8.6 (석유화학)8.4 (자동차)8.2 (선박)4.5이다.

수입은 빠르게 증가

선박은 전년의 사상최대 실적달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나, 과거 수주효과로 400억불 이상의 수출 지속 및 수출 1위 유지되고,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 IT 품목은 수요회복, 단가상승이 동반되면서 수출호조가 예상된다.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나,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자동차, 자동차부품은 각국 정부의 지원제도 종료, 세계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본격적인 수출증대는 '11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철강, 일반기계 등은 설비투자가 재개되나, 생산과잉, 수요부진 등으로 '08년 수준에 못 미치는 완만한 회복세 예상되며,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은 역내 신규설비 가동으로 여건악화 예상된다.

수입은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 설비투자 재개, 내수 회복 등으로 빠르게 늘어 수출증가폭을 상회할 전망이다. '10년 업종별 전망(%)은 (원유)31.0 (가스)17.8 (석유제품)17.2 (철강제품)11.6 (반도체)6.1이다. 특히, 자본재는 반도체, LCD 등 수출호조품목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재개됨에 따라 큰 폭의 수입증가 예상된다.

액정디바이스 두 자리수 수출실적

2009년 13대 품목별 수출 동향은 두 자릿수 증가한 품목(1)은 액정디바이스(28.5%)이고, 한 자릿수 증가한 품목(1)은 선박류(4.4%), 한 자릿수 감소한 품목(1)은 반도체(Δ5.3%), 두 자릿수 감소한 품목(10)은 섬유류(Δ12.6%), 무선통신기기(Δ13.5%), 석유화학(Δ14.9%), 자동차부품(Δ16.0%), 가전(Δ21.7%), 철강제품(Δ22.9%), 컴퓨터(Δ25.1%), 자동차(Δ27.4%), 일

반기계(Δ28.3%), 석유제품(Δ39.2%)이다.

액정디바이스의 경우, 대중 수출 증가로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시현하였다. 2008년 182.5억달러(9.5%)에서 2009년 234.5억달러(28.5%)이다. 원인은 08년말 금융위기로 수요가 급감하였으나, 09.4월이후 月 10% 이상의 성장세 지속하여 사상최대의 실적을 거양한 것이다. 수출증가율(%)은 ('08.10)Δ2.6 → (12)Δ44.8 → ('09.1)Δ29.2 → (3)8.8 → (5)18.1→(7)33.4 → (9)29.0 → (11)38.9 → (12)177.7이다.

특히, 家電下鄉, 以舊換新 등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바탕으로 對中 수출이 전년대비 81.5% 증가하여 對中 수출비중이 54.1%로 증가하였다. 對中 수출비중(%)은 ('05)16.2→('07)34.5→('08)37.3→('09)54.1이다. 경쟁국인 대만,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면서 영업이익률과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영업이익률('08.3Q→'09.3Q)은 (삼성) 8.1 → 15.0, (LGD) 6.6 → 15.0, (AUO) 2.6 → 6.8, (CMO) Δ4.3 → 7.4이다. LCD 세계시장점유율('08.2Q→'09.2Q, %)은 41.7 → 49.7이다.

반도체 양호한 실적 거양

반도체는 빠른 IT 수요 회복으로 상대적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다. 반도체는 2008년 327억달러(-16.0%)에서 2009년 310.4억달러(-5.3%)이다. IT수요회복과 경쟁업체의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실적을 시현한 것이다. 반도체 세계시장성장률(%)은 ('09.1Q)Δ11.9 → (2Q)16.9 → (3Q)19.7 → (4Q)0.6이다. 독일의 키몬드社가 파산보호, 대만업체가 구조조정 등이다.

메모리반도체는 하반기 공급부족이 시작되면서 단가상승과 물량증가가 동반되어 호조세 시현하였다. DRAM 공급률(%)은 ('09.1Q)4.8 → (2Q)0.2 → (3Q)Δ1.6 → (4Q)Δ2.8이고, DRAM 가격(1G DDR2, \$/개)은 ('09.1)0.90 → (3)0.84 → (5)1.22 → (7)1.14 → (9)1.76 → (11)2.62 → (12)2.43이다.

이에 따라 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점유율도 지속 확대되었다. 시장점유율(%)은 ('09.1Q)43.0 → (2Q)46.1 → (3Q)47.0 → (4Q)47.9이다.

무선통신기기는 2008년 357.1억달러(17.3%)에서 2009년 308.9억달러(-13.5%)이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쟁업체들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은 히트제품 출시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했다. 시장점유율(%)은 ('08.1Q)25.0 → (2Q)24.7 → (3Q)24.7 → (4Q)26.7 → ('09.1Q)28.8 → (2Q)30.9 → (3Q)32.5 → (4Q)31.5이다.

지역별로는 북미 시장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출확대에 주력하였다. 지역별 수출증가율(1.1~12.20, %)은 (미국)1.3, (중국)△5.0, (중동)△7.5, (ASEAN)△25.6, (EU)△33.0, (중남미)△25.4이다.

가전, 컴퓨터는 저조

가전은 2008년 129억달러(-4.0%)에서 2009년 100.9억달러(-21.7%)이다.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수요 및 교역량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큰 폭의 수출감소인 것이다. 다만, 일본, 유럽, 북미 업체에 비해 환율효과 등으로 상대적으로 수출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수출증가율(1.1~12.20, %)은 (LCD TV)△15.6, (VTR)△15.4, (음향기기)△23.0, (냉장고)△5.8, (세탁기)11.10이다.

컴퓨터는 2008년 107억달러(-22.5%)에서 2009년 80.1억달러(-25.1%)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부문 PC 교체 지연 및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출감소세가 지속되었다. 품목별 수출증가율(1.1~12.20, %)은 (프린터)△4.4 (컴퓨터부품)△21.0, (모니터)△47.6, (보조기억장치)△25.4이다. 향후 저가형 노트북 시장의 성장(연간 30% 성장), 윈도우 7 출시 등을 바탕으로 시장회복이 전망된다.

지난해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양주(47.3%)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일본(△23.7%)·EU(△21.6%)·미국(△18.9%) 등 對선진국 수출(△21.2%)은 평균 수출감소율(△15.2%)을 하회하

였다. 반면, 중국(△7.5%)·중동(△11.7%) 등 對개도국 수출(△12.5%)은 평균 수출감소율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對中 수출(△7.5%)은 기초산업기계(△54.8%)?무선통신기기(△5.0%) 등은 감소하였으나, 액정디바이스(81.5%)·자동차부품(33.0%)·철강제품(1.8%)·반도체(1.2%) 등은 증가하였다.

對美 수출(△18.9%)은 무선통신기기(1.3%) 등은 호조세이나, 철강제품(△56.3%)·석유화학제품(△44.5%)·자동차(△25.9%)·가정용전자제품(△10.2%) 등은 감소세이다.

對日 수출(△23.7%)은 비철금속제품(△50.9%)·석유제품(△42.4%)·철강제품(△37.3%)·액정디바이스(△32.9%) 등이 감소하고, 무선통신기기(20.7%)·농수산물(9.0%) 등이 증가세이다.

對EU 수출(△21.6%)은 선박류(19.8%)·액정디바이스(6.0%) 등은 증가하였고, 일반기계(△52.0%)·자동차(△50.6%)·철강제품(△42.4%)·석유화학제품(△30.6%) 등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 주요 지역별 수출 실적 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08년			2009년(1.1~12.20)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출	422,007	13.6	100.0	347,769	715.2	100.0
중 국	91,389	11.5	21.7	83,037	77.5	23.9
미 국	46,377	1.3	11.0	36,188	718.9	10.4
일 본	28,252	7.1	6.7	21,097	223.7	6.1
E U	58,375	4.3	13.8	44,571	221.6	12.8
ASEAN	49,283	27.2	11.7	39,217	217.5	11.3
중 동	26,647	35.1	6.3	22,654	211.7	6.5
중남미	32,923	28.8	7.8	25,785	219.8	7.4
대양주	11,216	40.5	2.7	15,297	47.3	4.4
아프리카	9,386	13.7	2.2	8,104	211.1	2.3